

학교생활에서의 행복에 관한 교원의 이야기 분석

박소영 · 김대현*
(대구대학교 · *부산대학교)

Teachers' Happy School Life: Their Story

So-Young PARK · Dae-Hyun KIM*
(Daegu University ·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and analyze teachers' happy school life from teachers' perspectives. For this purpose, interviews with teachers and administrators were analyzed to describe and interpret the meaning of teachers' happy school life. The result indicated that teachers' happy school life could be understood with teachers' professional instruction, rational communication among members, understanding for meaning of works.

Key words : Teachers' happy school, School life, Qualitative analysis

I.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34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을 기록한다는 사실이 보고되면서,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담론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의 행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한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교원들의 행복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비교적 소홀한 편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교원들의 행복은 연기되고 희생되는 것이 어쩌면 기꺼이 감내해야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닌가 라는 시선도 있을 수 있다. Lopez(2012)는 교사의 행복이 학생 행복의 8%를 설명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교사의 행복이 학생의 행복과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사의 행복은 학생의 행복을 위

해 연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충족될 필요가 있다.

그 동안의 관심과 연구는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실제 학습에 있어서 행복한 감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있다. Scoffham(2011)는 학습에 있어 행복한 감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는데, 이는 학습의 효과가 높을 때 행복해진다기보다는, 행복한 감정이 있을 때 학습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물론, 슬픔이나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승화시킴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도 있지만, 제로섬의 부정적 감정보다는 윈-윈 게임의 긍정적 감정(Seligman, 2004)을 가지고 참여하는 학습경험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 Corresponding author : 051-510-2629, dnkim@pusan.ac.kr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학생들의 행복이 교사들의 행복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행복을 위해 학교 상황에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가를 밝힐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교사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은지를 교사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수행된 교사의 행복 관련 국내 연구는 주로 영·유아교사의 행복에 관한 연구와 교사의 심리적 특성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교사의 교직행복 관련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Chung Kwang-Hee(201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직행복'의 관점에서 교사의 심리나 감정 상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소개되었으며, 교사의 교직 행복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 과제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학교생활에서의 행복에 관한 교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연구는 많지 않다.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연구 중에는 교사의 업무부담(Kim Dae-Hyun et al., 2013)이나 학교의 자율성(Kim, Dae-Hyun & Kim, Hye-Na, 2014)에 관한 연구들도 있지만, 행복에 관한 교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원들의 관점에서 초·중등학교 교원들이 학교생활에서의 행복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묘사하고, 왜 그렇게 인지하는가를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들은 행복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건강한 학교를 어떻게 인지하는가.

둘째, 교원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셋째, 교원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언제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는가.

넷째, 교원들은 건강한 학교가 되기 위해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가.

이 연구는 교원들이 인지하는 학교생활의 행복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교원이 학교에서 보

다 행복할 수 있기 위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교원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경상권 지역의 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여기에서는 행복교육에 관한 주요 연구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행복과 교육」을 저술한 Noddings(2003)는 행복한 학생들이 불행한 학생들보다 더 잘 배운다고 말하며, 행복한 교실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서 생겨난 '표출된 필요'와 외부에서 부과된 '추정된 필요'의 균형, 학생들이 재미있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그리고 교사가 행복한 학교이다. Noddings에 따르면, 행복한 교실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추정된 필요'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서 생겨난 신체적, 환경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놀이를 통한 재미있는 수업과 자율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학교에서 행복한 교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저술한 Seligman(2004)은 행복한 삶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이는 긍정하는 삶, 몰입하는 삶, 의미있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으로 설명된다. 긍정하는 삶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추구하면서 매일매일을 즐기는 삶이며, 몰입하는 삶은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깊이 만족하는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미있는 삶은 강점을 활용하면서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지식과 능력과 선을 촉진시키는 삶이다.

행복교육의 개념, 정책, 실태를 분석하고, 학교에서의 행복교육 모형을 개발한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3)은 목적으로서의 행복, 과정으로서의 행복 혹은 행복한 교육, 교육내용으로서의 행복 혹은 행복수업, 교육관계자의 행복: 행복한 교사, 학생, 학부모, 행복을 증진하는 교육환경을 제시하였다. 교육의 포괄적 목적은 행복 그 자체가 되어야 하며, 교육의 과정에서의 행복도 중시되어야 한다. 또한 행복은 교육내용이 될 수 있으며,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심리적, 물리적 환경)이 갖추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한국 교사의 '교직행복'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 교사의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Chung, Kwang-Hee(2014)는 교사의 교직행복을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교사의 교직행복은 교직 현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내적, 외적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필요가 있었으며, 향후 교사에 관한 연구는 교사의 교직행복의 관점을 포함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효과적인 조직 속에서의 학교 교육을 강조하던 담론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교육을 강조하고, 동시에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가 행복할 권리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고 가치롭다. 그러나 현재 교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목소리는 직접적으로 들려주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원들이 인지하는 학교생활에서의 행복에 관하여 분석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이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에서의 행복에 관한 교원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묘사하고, 그러한 생각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와 관리자(교감, 교

장, 장학사)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들은 경상권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 2명, 중학교 교사 4명, 고등학교 교사 3명, 초등학교 관리자 5명, 중등학교 관리자 8명으로 총 22명이다.

2. 자료 수집

이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을 통해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였다¹⁾. 교사와 관리자를 구분하여 최소 1명 ~ 최대 4명으로 구성된 면담을 총 7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건강한 학교, 학교생활에서의 행복, 어려움, 건강한 학교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였으며,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제시하는 의견에 따라 연구자가 후속 질문을 제시하는 반구조화된 형태의 면담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면담 초기에 제시한 개방형 질문은 다음과 같다.

- 건강한 학교란 어떤 학교입니까?
-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언제 행복합니까?
- 학교생활을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행복하지 않은 때는 언제입니까?
- 건강한 학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면담 전사 자료를 대상으로 Forman과 Damschroder(2008)의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자료 몰입, 축소, 해석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자료 몰입 단계에서는 전사본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였다. 축소 단계에서는 원자료를 연구 문제에 적합한 형태로 주제와 범주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해석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메모와

1) 이 연구는 Kim, Dae-Hyun et al.(2013), Kim, Dae-Hyun & Kim, Hye-Na(2014)의 연구에서 2013년 6월부터 7월까지 수집한 자료들 중 일부분을 활용하였음.

축소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 등을 통합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모든 연구자들은 A부터 V까지의 알파벳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시하였으며, 교사(A~I)는 T를 앞에 제시하고, 관리자(J~V)는 M을 제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1. 건강한 학교에 대한 이야기

교원들은 건강한 학교란 자생력과 자율성이 있는 학교,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그리고 소통하는 학교라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가. 자생력과 자율성이 있는 학교

교원들은 건강한 학교의 조건으로 자생력과 자율성이 있는 학교를 제시하였다. 자생력과 자율성에 관한 교원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건강한 학교란 외부의 ... 변화에 대처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진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적응, 반응, 저항 등의 과정에서 자율성을 지켜가는 학교입니다(TH).

건강한 학교란 학교 시스템 자체가 다른 요구나 사회적 체계에 대해 수동화되지 않는 학교, 사회적 변화나 구성원, 아이들 변화에 민감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진 학교라고 생각합니다(TI).

건강한 학교란 학교가 자율적이고 온전한 상태에서, 학생이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사회인으로서 기초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배움의 터전이 되는 학교입니다(TI).

교원들은 건강한 학교란 자율성을 지니고 학교 내외의 구성원들에게 자율적인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나. 구성원의 건강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교원들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건강과 이들의 다양한 요구가 존중될 수 있는 학교를 건강한 학교의 조건으로 이야기하였다.

건강한 학교에서는 조직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건강 수준이 올라가야 합니다. 구성원 각자의 의견이나 생각이라든가 개성이나 요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존중되는 학교가 건강한 학교라고 생각해요(TG).

건강한 학교란 구성원이 건강한 학교입니다. 학생이 건강하고, 교사가 건강하고, 조직이 건강한 학교입니다(TH).

건강한 학교란 학생들이 자기 고유의 색깔, 능력, 적성을 접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체로 학교를 평가할 때 학생들의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학교는 건강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TI).

교원들은 건강한 학교가 되기 위해 조직만 건강할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건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학생들은 지덕체가 모두 건강하여야 하며, 교사 또한 교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조직 또한 외부의 변화에 적응하고 반응할 수 있을 때 건강한 학교가 될 수 있다.

다. 소통하는 학교

교원들은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상호 영향을 주며 성장하는 학교가 건강한 학교라고 인지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건강한 학교란 ... 서로 믿으면서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해요. 의사소통 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TB).

건강한 학교란 구성원들 간에 소통이 원활하고, 상호존중하면서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건강한 학교라고 생각해요(TG).

건강한 학교란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된 학교입니다.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협의하는 체제로 가야 건강할 것 같고, 교사와 교사 사이에도 서로 믿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고,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MN).

건강한 학교란 교사가 학생을 인정하고, 교사가 학

부모를 인정하고, 교사와 관리자의 관계도 상호 인정되어야합니다(MN).

교원들은 건강한 학교란 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 간에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협의할 수 있는 소통의 관계를 필요로 한다고 인지하였다. 건강한 학교란 서로에게 지지하고 통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존중할 수 있는 관계의 형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 행복한 학교생활에 대한 이야기

교원들은 학교에서의 행복은 자신있는 수업을 할 때,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학생과 교사 모두의 성장이 이루어질 때 느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가. 자신있는 수업을 할 때 행복하다.

교원들은 자신의 중요한 역할을 수업으로 인지하며, 수업할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업을 잘 할 수 있을 때 행복감이 높아지며, 학생들도 선생님이 수업을 잘하실 때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으로 인지하였다. 수업은 교사의 정체성과 관련되며, 재미있고 자신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을 때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교사들은 가르치면서 행복을 느낀다고 할 수 있어 요(TH).

수업을 맛있게 재미있게 하는 그 행복을 말로 다 할 수 없어요(MN).

아이들이 선생님에게서 좋다고 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선생님이 친절하고 재미있더라는 것 하나와,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가 수업을 잘하신다는 얘기입니다(MM).

교원들은 선생님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가르치면서 행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학교생활에서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나.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다.

교원들은 소통과 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행복한 것으로 인지하였다. 구성원 간의 합리적인 소통의 절차와 개방적 사고는 교원의 행복감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구성원들이 함께 생각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와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학교 오는 것이 더욱 즐거워질 것이고, 학교 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일단 학교가 행복해지려면 관리자와 교사 사이나 담임과 학생 사이의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TF).

선생님들 간에 협력하는게 ... 잘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기분이 좋더라고요(TB).

선생님들 마음을 읽어내고 절차를 민주적으로 진행하면 성과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MS).

모든 선생님들 의견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합리적 사고와 (의견을) 수용하는 사고가 있으면 교사들은 행복해질 거 같아요(TE).

교원들은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 믿음과 신뢰, 합리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 학생과 교사의 상호성장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다.

교원들은 학생과 교사의 상호성장이 행복한 학교생활의 요소가 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학교에서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내가 계획했던 변화가 학생들에게 나타날 때 정말 좋더라고요(TB).

아이들과 만나 무언가를 하면서 서로가 성장했다고 느껴질 때가 제일 행복해요. 교사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학교를 통해 교사도 발전, 성장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행복해요(TI).

학교에만 있으면 수업, 담임, 행정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에너지가 너무 소진된다고 느낍니다. 이때는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죠(TG).

교원들에 따르면, 학생이 교육을 받고 변화할

때 보람을 느끼며 행복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학교에서 교원 자신의 성장이 이루어질 때에도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교원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에너지가 소진될 때에는 행복감을 느끼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학생들과 어느 정도 경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성장을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3. 학교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교원들에게 학교생활이 힘들고 행복하지 않을 때는 수업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하지 않을 때, 소통이 부재할 때, 그리고 교육활동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 수업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힘들다.

수업은 교사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교사를 힘들고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교원들은 수업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학교생활이 어렵고 행복하지 않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저 같은 경우는 (교직 경력) 25년인데, 지금까지 가장 행복하지 않는 순간이 수업할 때입니다. 수업을 만족스럽게 하고 나오면 기분이 좋지만, 수업이 마음에 안 들고 째뻍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TD).

수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수업 준비를 위해 교재를 연구하는 시간을 없애는 업무가 대부분이죠. 저희 학교의 경우 1년간 120시간의 연수를 이수하도록 강요하고 있거든요. (연수의) 모든 결론은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된다입니다. 현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학교 개인 성과급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수업 교재 연구를 못하도록 괴롭히는 (것이 학교생활에서 어렵습니다)(TA).

교원들은 수업을 만족스럽게 했을 때는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지만, 수업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에는 힘들고 행복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수업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먼저 수업 준비를 위

한 교재 연구 시간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 수업 준비를 위한 연구 시간을 없애는 문제점으로는 업무 과중, 현장성이 부족한 내용의 연수 의무화, 그리고 이에 따른 성과급 차별의 문제 등이 분석되었다.

나. 학생이 수업에 몰입하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

교사들은 학생이 몰입하지 않는 수업을 힘들어 하였다.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하지 않는 이유로 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였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되게 산만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 요즘 수업분위기 생각하면 그래도 눈을 반짝거리고 질문에 대담도 하고 참여하는 아이가 한 반에 5명 정도 있어요. 수업을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하는 애가 한 10명, 그 외에는 거의 안 듣습니다(TF).

학생들이 수업에 교과 중심의 딱딱한 교육과정, 수업에 대한 흥미 부족, 기본 학습 습관 부족, 학교에서의 활동 과다로 인한 학습 피로, 학습 수준의 격차, 진로 의식 부족과 명문대 진학 중심의 분위기, 입시과목 여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교육과정이 딱딱하고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아이들한테 ‘애 이리와’, 얘기할 시간이 한 번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MN).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공부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놀거리, 볼거리가 많으니까 수업에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어렵죠(MQ).

ICT가 문제였습니다. 선생님들이 판서 안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이 프린트에 괄호 넣기 정도만 하니까 수업 몰입도가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노트필기를 하는 중이라도 수업이 되는데 필기할 일이 없어지면서 수업 몰입도가 떨어진다(MO).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키는 게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산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학습 플래너, 자기주도학습 등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어떤 학교는 전부 수용하고, 그걸 전부 학생들이 해야 하니 수업에 몰입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TD).

결손학습이 누적되고 학습실패 경험이 많이 쌓인

아이들은 결국 선생님을 피하게 되고 배움을 피하게 되고 수업을 거부하는 형태로 잠을 (자게 됩니다)(MQ).

자신에게 맞는 길을 가도록 학교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진학 중심으로 서울대에 목을 매게 하는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수능 등급의 순위를 매기고 교육청에서도 관리자 성과급 매길 때 학교 성적을 중요시하니...(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몰입할 수 있는 수업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MS).

입시과목이 아니면 옛날부터 수업이 안됩니다(MQ).

교원들은 학생이 수업에 몰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그 원인으로 교과 중심의 딱딱한 교육과정,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부족, 기본 학습 습관 부족, 학교에서의 활동 과다로 인한 학습 피로, 명문대 진학지도 중심의 분위기, 입시과목 여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즉, 교과 중심의 딱딱한 교육과정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학생들은 기본 학습 습관이 부족하여 해당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의 활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에는 너무 피로감을 느낀다.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진로지도 보다는 명문대 진학지도 중심의 학교 안팎의 분위기로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흥미를 가지기 어렵다. 또한 입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수업 내용에 대해 흥미를 가지거나 몰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 소통이 부족할 때 힘들어진다.

학교 구성원 간의 소통이 없으면 학교생활은 힘들어진다. 여기에는 교원 간의 벽, 학교 내 소통 기회의 부족과 소통의 형식적 절차, 그리고 교원과 학부모 간의 벽 등의 문제들이 있었다.

먼저 교원 간의 벽으로는 학년 간,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일반교사 간, 선후배 세대 간, 교사와 관리자 간의 문제가 있었다.

진로진학교사가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학년에서는 학생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해당 학년이나 학

급에서는 컨설팅을 하지 못하면서도 학생을 공개해서 도움을 청하기 싫어하죠(MR).

반에 특수반 아이가 있으면 일반교사들은 왜 일반 학교에 와서 다른 아이들 피해주나(라고 생각해요). (일반 교사들은) 통합교육을 아직 수용 못합니다(TE).

제가 10년 전만 해도 예를 들면 제가 대표 수업을 한다, 그러면 모두 와서 도와주는 분위기였어요. 이제는 어떡냐 하면 ‘이 일은 네 일이잖아. 네가 열심히 해서 점수 받는 일이잖아’ 하면서 전혀 협조가 없어요(TA).

학교에는 80, 81, 82학번의 교사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 이후로 발령이 드물게 되면서 (세대 간의 완충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중간 세대 교사가 부족하여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MS).

교사는 교장, 교감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로 관리자는 교사를 못 믿고 간섭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관리자는 지도라고 생각하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지시고 통제가 됩니다. 서로를 인정하면 되는데 잘 안 되는게 있고, 가치관이나 철학의 차이도 많은 것 같습니다(MN).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에는 교원들 간의 여러 유형의 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교원들 간의 소통의 기회 부족과 형식적인 소통에서 비롯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옛날에는 아침마다 회의를 하고, 필요하면 오후에도 회의를 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회의를 한 번 하는데, 10분 정도 합니다. 이는 회의가 아니라 전달이라고 할 수 있죠(MO).

교사의 직원 연수가 옛날에는 매주 1회, 부장은 매주 2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주 1회 연수하는 직원연수 시간도 완전히 축소됐어요(MN).

선생님들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시행했을 경우에 소외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는 거 같고, 교과협의회를 하면 실제적 교과협의회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많은 요인들이 일방적 지시에 의해 시행되기 때문에 소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MQ).

또한 교원과 학부모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도 교원들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들어오면서 엄마들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커피를 타 마신다’ 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난다고 해서 교사들이 (놀면서) 그럴 분들은 없습니다(TA).

초등학교는 돌봄 교실을 하고, 중학교에서는 보충 수업하고 토요스쿨을 하잖아요. 모든 걸 학교가 포용하라는 시스템 구조(속에서 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과연 옳을까요.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 교사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 배, 네 배 더 많은 돈을 주고 받는 수업과 학교의 교사 수업을 계속 비교하니깐 거기서 오는 괴로움이 큼니다 (MT).

학부모의 기대 수준은 매우 높고, 반면에 부모님이 만족하는 수위 자체는 매우 다르더라고요(MN).

라. 의미를 찾지 못하는 활동은 힘들다.

교원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힘들고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는 수업 공개 활동 뿐만 아니라, 정규 수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들에도 적용되었다. 교원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서 교육적 의미를 자발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의미를 찾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힘들어하였다.

교사에게 있어 일차적인 것은 수업인데, 수업 이외의 일들을 하면서 교육적인 의미를 찾으라고 요구 받는 것과 교사가 스스로 의미를 찾는 것하고는 다르죠(TA).

수업 공개도 의미있는 일이 아니라는 데 암묵적 동의가 있습니다. 수업 공개는 손님을 위한 형식적 절차일 뿐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안 하는 데 수업공개는 의미가 없어요. 수업 공개는 중요한 일이지만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TH).

쉬는 시간 20분 동안에 4월은 줄넘기, 5월은 딱지치기 이런 것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놀아야 하는데 말이죠. 물론 의미를 만들려고 하면 다 만들어지고 그렇기는 한데, 선생님에게는 의미없는 또 하나의 업무이죠(TB).

한편, 교원들이 학교 내 활동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수업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

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다.

선생님들이 단위 수업을 하는데 교육과정이 연결되는 과정, 고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교육적인 활동들을 학교 실정에 맞게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못하는 상황이죠(MM).

실제 학교에 가보니 교육청과 학교가 두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학교가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였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계획서를 가장 분명한 근거로 잡고, 의미 있는 내용들을 수업 속에 녹이도록 했습니다(ML).

교원들은 왜 이러한 교육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였다. 만약,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서 보다 진정한 교육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학교생활이 더 행복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교육 활동 간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4. 건강한 학교에서의 행복을 위한 요구

교원들은 건강한 학교에서의 행복을 위해 학생과 교사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현장성 · 돌봄 · 긍정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교원양성 교육과정, 학교 외부의 변화 등을 요구하였다.

가. 학생이 삶의 주인이 되는 교육과정

교원들은 학생이 행복하고 그리하여 건강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학생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교육과정, 그리고 가르치기만 하거나 학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아이들이 삶의 주제로 살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교사들도 여기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지금은 아이들이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있을 때 공부하는 이유, 바르게 살 이유 찾을

수 있죠(MQ).

학교교육이 앞으로는 변죽을 울리는 교육이 되어야 해요. 제각기 나타낼 수 있는 잠재력 코너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MQ).

학생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성적에 의한 한줄 세우기 등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학교 맞춤형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 확대 등이 요구되었다.

일제평가, 학업 성취도나 수능 성적을 예전에는 공개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되고 있어요. 이런 건 안해야 불행해지지 않고, 그때부터 학교는 건강을 되찾기 시작할 겁니다(MQ).

우리 아이들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지 생각해도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많은 아이들이 자기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사장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야 합니다. 학교 자율화 이렇게 하지만 자율화 하면서 자치화 위한 노력 되었으면 해요 (MQ).

나. 현장성, 돌봄, 긍정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교원양성 교육과정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교원들은 현장성 있는 교원양성 교육과정과 돌봄과 긍정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교원들은 예비 교사들이 수업에 필요한 능력을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발령을 받음으로써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교육 실습을 통해 수업에 필요한 능력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실습 기간은 짧은 편이고 그 기간 동안에도 수업 능력을 제대로 배우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여러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일차적으로는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해 예비 교사들이 교사로서 필요한 능력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요구되었다.

제대로 된 교과 교육이나 교수학습법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아서, 대학생 때 실습을 하고, (현장 교사) 1, 2년차(에) 애를 쓰면서 수업을 하죠. 그러면 학생들에게 죄를 지어가면서 훈련이 되는 거죠. 많은 관리자가 실제 수업과정에 대한 마인드가 크게 없다. 그래서 3, 4, 5년 동안에 수업 기술이 개선, 발전이 되지 않고 적응기가 되면서 수업 패턴을 바꿀 수가 없게 된다고 본인이 느끼는 됩니다(MK).

문제는 교생실습 나가서 수업기술을 배울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되거든요. 수업기술 같은 것도 이미 여러 차례 1학년 때부터 (배워야 하는데), 교육대학교 같은 데는 3학년 때부터 (교육실습이) 있잖아요. 걸학기식 훑고 지나가는 건데 적어도 1년에 두 달은 학교에 두 달은 파견하는 제도를 뭔가를 수석제도를 도입하자 할 정도로 지꾸만 강조하잖아요. 그걸 시범대에서 움직여줘야지 교육청하고 MOU 체결해서 각 학교에 가서 봉사활동 하고 오라고 기간을 주면 가서 배울 수도 있고(MQ).

또한 교원들은 돌봄과 긍정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요구하였다. 교원의 역할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출 수 있는 교원양성 교육과정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이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긍정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면 더욱 행복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교수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에서 학교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말아서 하는 걸 교육과정에 넣어서 정말 성실하게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지식적 측면보다도 사랑하는 마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양성 교육이 필요해요). 특히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MQ).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특수학급 아이들도 오잖아요.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필 왜 내 반일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옆반에 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마음을 다르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해요(MN).

다. 학교 외부의 변화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교육 정책

과 평가 제도, 그리고 예산 배분과 관련된 요구들이 제기되었다. 교육부 및 교육청의 교육 정책들에 대해서는 보다 현장성이 요구되었으며, 다양한 평가 제도들은 학교에서 보다 충분한 소신을 가지고 교육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학교 간, 교사 간 보다 공정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먼저 학교 현장을 고려한 교육정책에 대한 요구는 다음과 같다.

교육현장에 10년간 살아 부은 정책 보면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없어요. 반대하는 정책을 수없이 반대하고 있어도 절대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MQ).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으로 인해 학교를 폭력 천지로 만들어버렸죠. 학교 폭력 대책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이들 모두 잠정적 범죄자로 보니까 (적합한 정책이라 보기 어려워요.) 모든 아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정성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근본적 처방이라 생각합니다(MQ).

그리고 평가 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는 다음과 같다. 교원들은 보고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평가의 순기능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부정적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학교 평가, 관리자 평가, 직무평가 온갖 평가가 있어요. 평가를 함으로써 너무 바빠졌습니다.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교장도 좀 더 소신있게 (할 수 있어요)(MS).

평가제도, 평가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 형식주의는 결국 불신을 낳게 되면서 결국은 전체 조직이 시스템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MQ).

평가가 통합되어야 합니다. 평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문제 생기고 피곤해지는 부분 있지만, 평가를 통해서 교직 사회에 긴장을 주고 견제하게 되듯이. 평가의 순기능은 충분히 있습니다. 성과급의 부정적인 부분이나 모순,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80, 90 프로는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MT).

또한 학교 간, 교사 간 공정한 예산 분배에 대

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학교 간의 예산 분배의 불균형은 예산을 적게 받은 학교에 계속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사 간에도 업무가 많거나 수업이 많은 교사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다.

학교 간에 운영 예산 배분의 차이가 너무 큼니다. 학교 간에 경쟁이 안 되도록 예산을 배분하면서, '이 학교는 효과가 있다' 고 하는데 그건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학교 사정에 따라서 산식을 마련해서 (예산을 분배해야 합니다)(MQ).

성과급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선생님들 사이에 분란만 일으킵니다. (성과급 평가) 내용을 보면 수업을 많이 하는 담임보다, 수업을 작게 하는 각 부장이 높게 받을 수 있어 분란을 일으킨다(TD).

업무가 과중한 몇 사람 있어요. 나눌 수 없는 업무. 학생부장, 교무부장. 그래서 표준시수제를 도입하자는 거고 ... 시수에 따라 배분하고, 표준 업무를 기준 해가지고 업무가 과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성과급을 의무적으로 더 배정해준다던지 ... 담임수당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2월 말부터 담임 안 하려고 학교 안 나오기도 합니다(MQ).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교원들이 인지하는 건강한 학교, 행복한 학교에 대한 생각들을 묘사하고, 그러한 이유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초중등학교의 교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도출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논의

첫째, 건강한 학교의 조건으로 자생력과 자율성, 구성원의 건강과 다양성, 소통이 강조되었다. 이는 Costanza(2012)가 제시한 건강한 생태계의 개념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ostanza에 따르면, 건강한

생태계는 외부 스트레스에서 쉽게 회복되는 탄력성과 모든 개체들의 활기, 다양한 개체들이 풍부한 상호작용을 하는 조직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난다(이상수 외, 2014). 본 연구에 참여한 교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건강한 학교는 외부의 변화에 대처하면서 자율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 조직의 관점만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보다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의 건강과 조직의 건강이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또한 구성원의 다양한 특성과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하며 상호 영향을 주며 성장하는 학교를 건강한 학교로 인지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그 학교는 건강하지 않은 학교가 된다. 따라서 보다 건강한 학교가 되기 위하여 교원들이 이야기하는 자생력과 자율성, 다양한 구성원의 건강과 다양한 요구, 소통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교원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요소와 행복하지 않게 하는 요소들은 수업, 소통, 의미로 요약할 수 있었다. 이는 교원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와 행복을 주지 않는 요소가 동일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교원에게 행복을 주는 학교의 모습은 교사가 교실에서 자신있게 수업을 하고, 합리적인 소통과 협동이 원활하며,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의미있는 상호성장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취한다. 반면, 교원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는 학교의 모습은 교사가 수업에 자신이 없어 학생들을 수업에 몰입시키지 못하며, 합리적인 절차의 소통이나 협력없이, 자발적인 의미를 찾아내지 못한 채 표류하는 형태이다.

먼저, 교사가 수업에 자신이 없는 이유는 업무 과중에 따른 수업 연구의 시간 부족과 현장성이 부족한 내용으로 구성된 연수 의무화의 문제 등이 있었다. 학생에게나 교사에게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여 자신 있게 수업을 하기 위한 수업 연구 시간이 부족하

고, 게다가 교실 수업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더라도 성과급에 반영되기 때문에 연수 의무 시수를 채우느라 계속 클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에 자신을 가지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업무 과중에 관한 교사의 이야기를 분석한 Kim, Dae-Hyun et al.(2013)에 따르면, 교사들이 업무를 ‘잡무’라고 표현하면서 ‘의미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모든 일을 잡무로 인지한다는 점이 잘 나타났다. 또한 교실 수업을 방해하는 원인을 고찰한 Jeong, Han-Ho(2008)는 교실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들을 고찰하면서, 교사의 각종 업무 분장의 다양함과 교사에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느라 교재 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묘사하였다. 특히 부장 교사는 부서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느라 교실수업에 심각한 방해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업무의 과중함은 교사가 수업 연구를 할 시간을 고갈시키고, 수업에 점점 자신을 잃게 하는 요소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교원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하지 않는 것은 수업을 위한 연구 시간이 부족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교과 중심의 뻑뻑한 교육과정,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부족, 기본 학습 습관의 부족, 학교 내 학생들의 수행 활동 과다, 학생 간의 학습 격차, 명확한 진로 의식 부족과 명문대 진학 중심의 분위기, 입시과목 여부 등의 원인들이 제시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교원들의 성찰적 목소리를 나타낸 것이며, 수업참여기피의 원인을 교육과정, 흥미, 초등 교육에서 형성하지 못한 기본 학습 습관, 학교 내 과다한 학생 활동, 학생 간의 개인차, 교사의 역량, 입시 제도 등 복합적 측면에서 성찰한 결과이다.

수업참여기피 현상의 하나인 수업 시간에 멍하게 있거나 잠을 자는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업 시간에 잠자는 중학생들을 심층적으로 면담 연구한 Sung, Youl-Kwan & Lee, Hyoung-Bin

(2014)은 수업참여기피 현상의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수업참여기피의 원인은 수업 외적 원인(발달단계상 간극, 교육과정상 문제), 수업 내적 원인(지루함, 소통이 없음), 심리적 원인(낮은 학습동기, 학습의 의미 부재)으로 분석되며, 특히 높은 난도와 빠른 진도를 특징으로 하는 일방적 수업이 수업 시간에 멎거나 자는 현상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원들의 목소리에 의존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수업 내적 원인(지루함, 소통이 없음)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원들은 학생들의 활동 중심 수업이나 동기유발을 위해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교원들 역시 수업 내적 원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교원들이 인지한 학생들의 수업몰입이 어려운 원인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교육과정, 수업의 개선 노력에 아울러 학생들의 기본 학습 습관 형성을 위한 지도와 진로 지도, 그리고 교사의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과 학생의 진로에 충실한 교과목 이수가 가능한 입시 제도의 변화를 위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교원의 행복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소통과 의미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원들은 수업에 자신이 있고 학생들을 몰입시키는 데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합리적인 소통과 협력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 내 활동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행복감을 느끼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통과 관련하여 학년 간의 벽, 일반 교사와 특수 교사 간의 벽, 교사 간의 벽, 선후배 세대 간의 벽, 교사와 관리자 간의 벽, 소통의 기회 부족, 소통의 형식적 절차, 교원과 학부모와의 벽은 교원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서 학생의 성장이나 교사의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의미를

찾지 못할 때에도 교원들은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소통을 통해 구성원 간의 의미 전달과 의미 공유가 이루어진다면 교원들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상호 신뢰와 존중에 있을 것이다. 교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할 수 있을 때 원활한 소통과 의미 공유가 용이해질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교사들이 교직을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존경도, 신뢰도 실추(26.7%)를 들고 있었으며, 그다음으로는 승진과열 등 경쟁적 교직 구조(17.1%), 타직에 비해 낮은 처우(13.9%), 정부시책에 대한 불만(13.4%), 권위주의적 학교 운영(13.2%), 각종 업무(12.1%)의 순으로 나타났다(Chung, Kwang-Hee, 2014). 본 연구에 참여한 교원들이 기대하는 소통에 관한 이야기들은 교직에 대한 외부의 존경심이나 예우보다는 학교 내 구성원 상호간의 존중과 인정,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 소통 없이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여전히 힘들어 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무엇보다도 적절한 소통의 절차와 기회를 확보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의 형성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통을 통한 학교 활동에 대한 의미 공유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들은 건강한 학교를 위해 학생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 현장성·돌봄·긍정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교원양성 교육과정과 학교 외부의 정책 개선(교육, 평가, 예산)을 요구하였다. 교원들이 이야기하는 학생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란 성적 중심으로 한 줄을 세우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교원들은 가르치기만 하거나

학력만 강조하는 교육과정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근 논의되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공청회 자료집(National Curriculum Revision Research Council, 2014)에 따르면, 학습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을 구현할 수 있는 새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많이 아는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수반하며, 핵심 원리 중심의 교과 내용 엄선과 학습 내용의 연계성, 교과별 역량의 체계적 지도를 강조한다. 새 교육과정에서 개선될 학습경험의 질은 교원들이 이야기한 학생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점이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핵심 내용과 내용들 간의 연계성, 교과별 역량 중심의 지도가 가능한 형태로 교육과정이 개정된다면, 학생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는 현재보다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강조하는 진로교육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이외의 타학기에서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원양성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과목선택 활성화를 위한 교원양성 및 수급체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교원양성 및 수급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과목 공통으로 요구되는 교원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교원들은 예비 교사들이 보다 현장성 있는 교원양성교육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상으로만 보기 보다는 돌봄의 정신을 가지고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원들은 현장성 없고 사업성과 의무성이 짙은 교육 정책을 현장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개선하고, 각종 평가 및 보고 중심의 정책의 개선과 학교 간 및 교사 간 공정한 예산 분배를 요구하였다. 학교 밖 정책 결정자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정책의 의도를 학교 현장에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그 의미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고 결정은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학교와 학교 밖 정책 결정자간의 진정성 있는 소통의 절차와 소통의 기회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2. 결론

이 연구를 통해 교사의 학교생활에서의 행복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바를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들이 인지하는 건강한 학교는 자생력과 자율성이 있는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소통하는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학교가 되기 위해 교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은 건강한 학교의 요소로 자생력과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의 변화와 학교 구성원의 변화를 수용하고 구성원에게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학교를 강조하였다. 자율성은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존재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원리들 중의 하나로서, 학교가 사회의 변화와 구성원의 변화를 인지하고 그에 맞추어 학교를 변화,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학교 내에서 교사가 소신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는 자율성도 필요하다. 그동안 강조되어 왔던 학교의 자율성에 대한 확

대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학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곧 교사에게 학교 내 활동에 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원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때는 자신 있게 수업을 할 수 있을 때, 협력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학생과 교사의 상호 성장이 이루어질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생활이 어렵고 행복하지 않을 때는 수업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학생이 수업에 몰입하지 않을 때,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교육활동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학교 내 소통이 합리적인 절차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학교 내에 교사 연령 및 경력별 세대층이 골고루 존재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세대 층이 골고루 학교 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학교 내에 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K 지역에서는 신규 초등 교사를 농촌에 편중 배치하고, 경력교사는 부족하여 형평성에 논란이 되고 있다 (Yeongnamilbo, 2014. 11. 10). 경력 교사들이 대도시를 선호하기 때문인 까닭도 있지만, 학교 내 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연령대와 경력대를 고려하여 교사들이 골고루 균형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원들은 건강한 학교와 행복을 위해 학생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 현장성·돌봄·공정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교원양성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외부의 변화 등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를 위해 교원들이 요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제언

이 연구는 건강한 학교와 학교생활에서의 행복에 관한 교원들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해석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초중등 학교의 교사, 관리자를 골고루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는 하지만, 그 분석의 결과를 모든 상황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학교급과 직위의 교원들을 심층 면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교생활의 행복에 관한 교원들의 인지를 포괄적이면서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복한 학교생활에 관한 다양한 측면들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각 측면별로 심층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적으로는 학교생활에서의 행복을 결정하는 각 요소별 심층적 분석을 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Chung, Kwang-Hee(2014).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educators' professional 'teaching happiness' - Main factors contributing to the commitment of Korean deucators in previous research - ,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1(3), 35~58.
- Costanza, R.(2012). Ecosystem health and ecological engineering, Ecological Engineering, 45, 24-29.
- Kim, Dae-Hyun & Kim, Hye-Na(2014). Two different perspectives on principal autonomy,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2(1), 71~97.
- Kim,Dae-Hyun-Lee, Sang-Soo-Hong, Chang-Nam-Hwang, Soon-young-Lee, Yu-Na & Kim, Hye-Na(2013). A story on teachers' workload,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5(6), 1440~1458.
- Hong, Eun-Suk(2006). Conceptual understanding of resilience and instructional suggestio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1(2), 45-67.
- Hong, Eun-Sook(2012). An educational reflection on the happiness in school, Journal of Moral Education, 24(3), 241~265.
- Jeong, Han-Ho(2008). A study on factors of the obstruction in the process of classroom instru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 of Assignment Institute,

- 32, 63~94.
- Lee, Hye-Young·Na, Byung-Hyun· Kim, Min-Jo & Jang, Ga-Ram(2013). Developing of school model for happiness educati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Lee, Sang-Soo·Kim, Dae-Hyun·Lee, Yu-Na & Hwang, Soon-Young(201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diagnosis tool for healthy school ecosystems,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6(2), 249~266.
- Lee, Sang-Soo·Kim, Dae-Hyun· Huh, Sung-Hee· Lee, Dong-Hun & Lee, Yu-Na(2013). A Survey of perception if students, techers, and school administrators on the design components of healthy ecosystems of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29(3), 667~688.
- Lopez, S. J.(2011). Schools could be the happiest places on earth. Kappan, Dec.2011/Jan. 2012, 72~73.
-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Research Council(2014). 2015 Liberal arts and science integrated general curriculum highlights hearing. 2014. 09. 12.
- Noddings, N.(2003). Happiness and education. Lee. Jee-Hun et al. Translated(2008). Happiness and Education. Seoul: Hak Yi Dang.
- Seligman, M.(2004). Authentic happiness. Kim, In-Ja Translated(2009). Positive psychology. Gyeonggido Province: Mulpure.
- Sung, Youl-Kwan & Lee, Hyoung-Bin(2014). Sleeping students in class: A grounded theory study on the phemenon of students disengagemen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4(11), 147~171.
- Scoffham, S. & Barnes, J.(2011). Happiness matters: towards a pedagogy of happiness and well-being. The Curriculum Journal, 22(4), 535~548.
- Yeongnamilbo(2014). Disproportionately placement of Gyeongbuk new elementary teachers in rural, 2014. 11. 10.
-
- 논문접수일 : 2014년 11월 27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5년 01월 01일
 - 게재확정일 : 2015년 01월 28일